

금보다 귀한 것

More than Gold

신앙 성장 시리즈 30

금보다 귀한 것

More than Gold

© RBC Ministries

인 쇄 : 2008년 6월 23일

발 행 : 2008년 6월 28일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편집·교정 : 신영균, 이민용, 이장영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소망사

(02)392-4232

발간사/4
 들어가며/5

제1주(월) 말들과 경주하기(RUN WITH HORSES)7
 제1주(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HOW CAN I FORGIVE?) ...9
 제1주(수) 시도해 보기(GIVE IT A TRY)11
 제1주(목) 우리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HE KNOWS YOUR NAME) ...13
 제1주(금) 인생의 마감시간(LIFE' S FINISH LINE)15
 •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열 가지 이유/ 16

제2주(월) 사랑은 아픔을 주지요!(LOVE HURTS!)21
 제2주(화) 힘차게 끝마치도록 훈련하기(TRAIN TO FINISH STRONG) ...23
 제2주(수) 새로운 아이디어 구함(NEW IDEAS NEEDED)25
 제2주(목) 끝까지 달리기(FINISH THE RACE)27
 제2주(금) 내 몸을 치다(I BEAT MY BODY)29
 • 성경을 믿는 열 가지 이유/ 30

제3주(월) 퇴장(WALKING AWAY)35
 제3주(화) 금메달을 따라!(GO FOR THE GOLD!)37
 제3주(수) 당신의 마지막 날(YOUR LAST DAY)39
 제3주(목) 풀린 신비(A MYSTERY SOLVED)41
 제3주(금) 빈 증거(EMPTY PROOF)43
 •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는 열 가지 이유/ 44

제4주(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NO GREATER LOVE)49
 제4주(화) 확실한 끝마무리(FINISH STRONG)51
 제4주(수) 다음에 계속(TO BE CONTINUED)53
 제4주(목) 놓쳐버린 기도(LOST PRAYERS)55
 제4주(금) 필요할 때 거기 있다(THERE WHEN YOU NEED IT)57
 • 기독교 신앙을 믿는 열 가지 이유/ 58
 • 인격적인 관계 맺기/ 62

발간사



이번 북경올림픽을 맞이하여 신앙성장시리즈 30호 “금보다 귀한 것”을 발간했습니다. 이 소책자가 독자 여러분들이 별미를 맛볼 기회를 제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은 스포츠와 같아 최선을 다해 정당하게 경기를 하려면 많은 훈련과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질들을 모아서 목상하도록 했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조금 다르게 오늘의 양식 대신 “열 가지 이유”라는 내용을 실어 신앙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번 신앙성장시리즈 소책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내주면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받으면 영적인 도움을 누릴 것입니다. 주문하셔서 선물로 보내십시오. 무척 고마워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오늘의 양식을 잘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필요한 삶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 상 복 목사

들어가며

19세기가 저물어갈 즈음, 프랑스의 교육자 삐에르 꾸베르땅은 국가와 민족들이 운동경기를 통해 서로 대화하며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인내하며 노력한 끝에 꾸베르땅은 1,500여년 전 첫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고대 올림픽의 본고장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14개국에서 241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소규모로 시작한 올림픽이 지금은 대규모 대회로 커졌습니다. 올림픽 발상지 아테네에서 개최된 2004년 올림픽 경기에는 201개국에서 10,625명이 참가하여 올림픽의 영광을 위하여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례없는 거대한 모임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남녀 경쟁자들은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 규칙을 지키면서 스포츠맨 정신으로 최고수준의 기량과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운동경기의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지니고 받아들여야 할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로 운동경기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비유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연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운동 경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일상적인 삶에 적용해보고 특별히 영원함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소책자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매일 읽으면서 마음속 깊이 새겨두면 소모적인 경쟁사회의 베일 너머에 있는 인생이라는 경기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당신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줄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Week 1
Monday

RUN WITH HORSES

READ:
Jeremiah 12:1-5

If you have run with
the footmen, and they
have wearied you, then
how can you contend
with horses?
—Jeremiah 12:5

In the Olympic Games, the greatest runners of the world compete for gold medals and laurel wreaths. Long before the final race, competitions are held i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to weed out those who are not fast enough to compete. At the Games, the fastest of the fast qualify for the final competition.

The prophet Jeremiah was also involved in a fierce competition—but it was with idolaters and wicked priests. He was responding to the Lord’s call to condemn Judah and to predict her downfall. He became so discouraged that he asked the Lord, “Why does the way of the wicked prosper? Why are [they] happy?” (12:1).

That’s when God said to Jeremiah, in essence, “The competition has just begun. So far you’ve been dealing with minor issues (running with footmen). How will you handle it when the really tough stuff comes (contending with horses)?”

Perhaps you’ve run into some difficulties recently: your boss, an illness, conflicts in your church. You’ve pleaded with the Lord for relief. But He may have said in response, “Toughen up. Dig in. It may get worse.” When He asks you to “run with horses,” He will be with you to strengthen and sustain you. That’s what God does. —Dave Egner

*He giveth more grace when the burdens grow greater,
He sendeth more strength when the labors increase;
To added affliction He addeth His mercy,
To multiplied trials, His multiplied peace. —Flint*

6

I press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4

제 1 주
월요일

말들과 경주하기

성구:
예레미야 12:1-5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
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 12:5

■ 찬송가 394

하지 않은 문제(보행자와 달리기)만 다루어 왔다. 진짜 힘든 경기(말들과 경주하기)가 닥치면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어쩌면 당신도 최근에 직장 상사, 질병, 교회에서의 인간관계와 같은 어떤 힘든 일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더 강해져라. 파고들어 가거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응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들과 경주하라”고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기 위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짐이 더 무거워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네
수고가 더해질 때 힘을 더 보내주시네
고통이 더해질 때 자비를 더하시고
몇 배의 시험에 몇 배의 평강을 내리시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립보서 3:14).

HOW CAN I FORGIVE?

READ:
Matthew 18:21-35

If you do not forgive
men their trespasses,
neither will your Father
forgive your trespasses.
—Matthew 6:15

Some of life's hurts are so deep and painful that to forgive the people who caused them seems impossible. Yet Jesus says that we can't experience His forgiveness if we have an unforgiving spirit.

In World War II, Corrie Ten Boom and her sister Betsie were arrested for concealing Jews and were sent to a German concentration camp. Betsie died a slow and terrible death as a result of the cruel treatment.

Then, in 1947, Corrie spoke about God's forgiveness to a church in Munich. Afterward, a man sought her out. She recognized him as one of the guards who had mistreated her and Betsie. He told her that he had become a Christian, and with extended hand he

asked for her forgiveness. Corrie struggled with her feelings, but when she recalled the words of Jesus in Matthew 6:15, she knew she had to forgive. She silently prayed, "Jesus, help me!" and thrust her hand into the hand of her former tormentor.

Someone has said, "Forgiveness is not a case of 'holy amnesia' that wipes out the past. Instead, it is the experience of healing that drains the poison from the wound." God asks us to do for others what He has done for us through Jesus Christ. He'll give us strength to forgive. —Dennis De Haan

*Lord Jesus, give us grace each day
That we may follow in Your way,
Especially when some unloved soul
Needs our forgiving to be whole. —D. De Haan*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구:
마태복음 18:21-3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15

■ 찬송가 218

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지만 마태복음 6장 15절의 예수님 말씀을 상기했을 때 그녀는 용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한 후 자기를 고문하던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용서란 과거를 말끔히 씻어내는 성스러운 망각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독소를 빼내는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남을 위해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날마다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특별히 사랑받지 못하는 영혼이
우리의 용서함을 받아 온전케 되도록 하소서.

어떤 삶의 상처는 너무 깊고 아파서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코리 텐 붐과 벳치라는 두 자매는 유대인을 숨긴 이유로 체포되어 독일 강제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벳치는 잔혹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오래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후 1947년 코리는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녀는 그가 바로 벳치와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수용소 간수 중 한 사람임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코

GIVE IT A TRY

READ:
James 2:14-20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all.
—Galatians 6:10

The people of Greece wanted another winner. It was their Olympic Games, after all. The year was 1896, and amid political turmoil Baron Pierre de Coubertin had energized them to revive the ancient Olympic Games.

In these, the first version of what would become the modern Olympic Games, Greece had an excellent chance at winning the discus. Their man, Paraskevopoulos, seemed clearly the best. His toss of 94 feet, 11 2/3 inches appeared to be unreachable. Nobody came close—until an upstart from the USA, Robert Garrett by name, decided to enter a discus competi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He uncoiled his body in an unorthodox

movement and flung the disc 95 feet, 7 1/2 inches. He did not know it, but he was the best discus-tosser in the world.

How often do we find ourselves in Garrett's shoes, given an opportunity to do something big? Perhaps someone asks us to join a small group at a church, and we're afraid. Maybe we want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a neighbor—perhaps leading to a spiritual discussion, and we're hesitant.

Instead, as Garrett did, we should give it a try—and perhaps in the process win a victory for God's name that will surprise even us. —Dave Branon

*No service in itself is small,
None great, though earth it fill;
But that is small that seeks its own,
And great that does God's will.* —Anon.

시도해 보기

성구:

야고보서 2:14-2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갈라디아서 6:10

■ 찬송가 305

데 그 거리는 29.15미터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그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원반던지기 선수였던 것입니다.

큰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 개릿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 번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할지도 모르고 그런 권유를 받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대화를—어쩌면 영적인 토론으로 이끌어 가야 할—갖고 싶지만 주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개릿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 시도해봅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승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섬김에는 원래 작은 것도
지구를 채울 만큼 크다 해도, 큰 것도 없으니
작은 섬김도 섬김의 길을 추구하는 것,
큰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HE KNOWS
YOUR NAME

READ:
Psalm 147:1-9

He heals the broken-
hearted. . . . He
counts the number
of the stars; He calls
them all by name.
—Psalm 147:3-4

How many stars are there? Astronomers don't know. They simply assure us that the cosmos contains more stars than can be numbered. Billions for sure—probably trillions!

Figures like that are hard for us to grasp. Even a million is mind-boggling. If you were counting a million \$1 bills at the rate of 60 a minute for 8 hours a day 5 days a week, it would take you nearly 7 weeks to complete the task. At the same rate it would take over 133 years to count a billion dollars.

Scripture declares that God, the Maker of the sun and moon, “made the stars also” (Genesis 1:16). It likewise declares that He “brings out their host by number; He calls them all by name, by the greatness of His might and the strength of His power; not one is missing” (Isaiah 40:26).

So if we ever wonder whether God is able to carry us with all our burdens, let us remember that He is the sovereign of the stars. Surely He who is the guide of the galaxies can deal with our situations.

If the skies are clear tonight, look heavenward and be thankful that the God who calls each star by name knows, loves, and cares for you. —Vernon Grounds

*I sing the wisdom that ordained
The sun to rule by day;
The moon shines full at His command,
And all the stars obey. —Watts*

우리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성구:
시편 147:1-9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
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시편 147:3-4

■ 찬송가 76

성경은 해와 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 1:16)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 40:26)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짐들을 모두 담당할 수 있으실까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바로 별들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합시다. 우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들도 물론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밤 하늘이 맑으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각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사랑하며 돌보심을 감사하십시오.

태양으로 낮을 주관케 하신
그 지혜 나 찬양하네
주님 말씀에 달이 빛을 발하고
모든 별들도 순종하네.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요? 천문학자들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저 우주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억 개가 넘는 것은 확실하고 아마도 1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숫자가 이쯤 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백만이라는 숫자만 해도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1불짜리로 백만 장을 셸다면 1분에 60장, 하루 8시간, 일주일에 닷새 동안을 세어도 이것을 다 세려면 거의 7주가 걸립니다. 같은 속도로 10억을 세려면 133년 이상이나 걸릴 것입니다.

성경은 해와 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 1:16)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READ:
Luke 12:16-21

Prepare to meet your
God.
—Amos 4:12

We're all confronted with deadlines! Bills must be paid, licenses renewed, tax returns filed—the list goes on and on.

One deadline we all face is of supreme importance, however. The Bible say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Hebrews 9:27).

Except for believers who are living when Jesus returns (1 Thessalonians 4:16-17), everyone will die. And all people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will stand before God in judgment. How foolish to neglect the preparation necessary for this inevitable accounting!

In Luke 12, Jesus told a parable of a rich man who planned to build bigger barns to store all his earthly goods so that he could live out his days in pleasure and ease. But God unexpectedly announced, “Fool! This night your soul will be required of you” (Luke 12:20). His ultimate deadline had arrived.

Are you ready to meet God? If you've never received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do so without delay! Believe that He shed His blood on the cross to forgive your sins, and that He conquered death by rising from the grave. Ask Him to save you. Then you can face life's finish line—our final deadline—with perfect confidence. —Richard De Haan

Life is uncertain,

Death is sure;

Sin the cause,

Christ the cure. —Anon.

인생의
마감시간

성구:
누가복음 12:16-21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
하라
-아모스 4:12

■ 찬송가 541

우리는 모두 마감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고,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등 할 일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감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살전 4:16-17)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에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큰 창고를 지어서 자기의 모든 세상 재물을 쌓아두고 여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려는 계획을

세웠던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눅 12:20)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최종 마감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일 아직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체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최후 마감시간을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나,
죽음은 확실하네
그가 원인이니,
그리스도는 고치시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열 가지 이유



1. 믿음의 불가피성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2. 과학의 한계

과학적인 방법은 그것이 측량가능하고 반복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의 정의를 살펴보면 과학을 통해 궁극적인 근원이나 목적이나 도덕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 그 자체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덕적 지침이나 가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규칙을 보여줄 뿐 자연의 근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3. 진화론의 문제점

진화론을 근거로 생명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생명이 탄생한 다음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차츰 진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언젠가는 발견할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과학에 내재된 확률의 법칙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창조주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

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잡한 우주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지성을 갖춘 설계자나 그와 비슷한 대상의 존재 가능성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4. 가슴속의 본성

인류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거나 크게 놀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도를 하건 신성모독을 하건 신에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을 계속 바라는 마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전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고통과 불공평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분노할 때조차도 우리는 삶이란 당연히 가야할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도덕적 양심에서 이끌어냅니다 (롬 2:14-15).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못한 쪽보다 더 나은 쪽으로 이끌립니다.

5. 창세기의 배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창 1:1)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떠난 사건과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을 수백만의 유대인들과 애굽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역사적인 시간 속에 실제적인 장소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주장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제 장소를 찾아가서 스스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6.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불공평했던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나라”를 보호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역사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모세는 이스라엘이 땅을 얻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할 유례 없을 고통과 이스라엘인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과 결국에는 회개하고 최후의 날에 이르러 회복될 것에 언했습니다(신 28-34; 사 2:1-5; 겔 37-38).

7. 예수님의 말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바란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이라고 말했습니다.

8. 증거가 된 기적들

만약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인 구약 성경은 권위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사흘 후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했던 대로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9. 세밀한 성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정도로 위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 큰 분이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질 만큼 충분히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동기나 생각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 우리 마음의 근심, 심지어 떨어지는 참새의 상태까지도 압니다(시 139; 마 10:29).

10. 경험의 목소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속히 찾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행 17:26-27).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행 17:27-28).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겠다고 약속하지만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하나님에게 기꺼이 의지하려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성경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증거의 빛 속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요 5:24; 롬 4:5; 엡 2:8-10).



더 읽을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www.discoveryseries.org/q0101를 클릭해서 읽어보십시오.

LOVE HURTS!

READ:
1 John 4:7-16

This is My command-
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5:12

Sometimes love sure hurts!” The mother and father were expressing the difficulties and heartaches of guiding their children through their teen years. “Maybe if we didn’t love them quite so much it wouldn’t be so hard,” the man added.

Even though love brings pain and sorrow, what would life be without it? In his book *The Four Loves*, C. S. Lewis wrote:

“To love at all is to be vulnerable. Love anything and your heart will be wrung and possibly be broken. If you want to make sure of keeping it intact, you must give your heart to no one, not even an animal. Wrap it carefully around with hobbies and little luxuries; avoid all entanglements; lock it

up safe in the casket or coffin of your selfishness. . . . The only place outside heaven where you can be perfectly safe from all the dangers . . . of love is hell.”

To love is to take risks, to expose our hearts. Sometimes it hurts! It hurt Jesus Christ, but He kept on loving—even at the cost of His life. And He asked us to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5:12).

Truly loving that spouse, that teenager, that neighbor, that colleague is Christlike, and it’s better than locking your heart in the coffin of self-centeredness. —Dave Egner

THINKING IT OVER

*How have you been hurt by those you’ve tried to love?
Have you been tempted to withhold your
love from them as a result?*

**사랑은
아픔을 주지요!**

성구:
요한일서 4:7-16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12

■ 찬송가 411

속에 안전하게 넣고 잠그십시오... 천국을 빼고는 사랑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은 아픔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주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계속 사랑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5:12).

우리들은 배우자를, 10대 청소년을, 이웃을, 그리고 직장 동료들께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자세이며 당신의 마음을 자기중심적인 관속에다 잠가 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생각해 볼 점

-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상처를 받았나요?
- 당신은 사랑을 억제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 보셨나요?
- 당신에게 끈기있는 사랑을 누가 어떻게 보여 주었는지요?

“**때**로는 사랑이 정말 아프기도 하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의 사춘기 동안 그들을 지도하면서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긴 하지만 사랑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루이스 씨는 그의 저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어쨌든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리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마음을 상처없이 보존하기 원한다면 아무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동물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취미와 작은 사치품으로 잘 감싸십시오; 휩쓸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기적인 상자나 관

Week 2
Tuesday

TRAIN TO FINISH STRONG

READ:
1 Corinthians 9:19-27

I discipline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1 Corinthians 9:27

Eighty-four years ago, Eric Liddell electrified the world by capturing an Olympic gold medal in the 400 meters—a race he was not expected to win. Liddell was the favorite at 100 meters, but he had withdrawn from that race after learning the qualifying heats would be on Sunday, a day he observed as one of worship and rest. Instead of lamenting his lost chance in the 100, he spent the next 6 months training for the 400—and set a new Olympic record.

Paul used a sports metaphor to emphasize the Christian's need for spiritual discipline. "Everyone who competes for the prize is temperate in all things" (1 Corinthians 9:25), that is, goes into strict training. "Now they do it to obtain a perishable crown, but we for an imperishable crown." Paul longed to remain faithful to Christ because he wanted to bring the message of salvation to others (vv.19,27).

Throughout Liddell's life, he disciplined himself spiritually each day by spending time in God's Word and in prayer. He remained faithful until he died of a brain tumor in a Japanese internment camp during World War II.

Strengthened by the grace and power of God, Eric Liddell ran well and finished strong in the race of life. And so can we.
—David McCasland

*To win the race of life in Christ,
This must become our daily goal:
To trust in God for grace and strength,
For discipline and self-control. —Sper*

힘차게 끝마치도록 훈련하기

성구:
고린도전서 9:1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
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27

■ 찬송가 510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실하게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19,27절).

리델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포로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강하게 된 에릭 리델은 그의 삶의 경주에서도 잘 달렸으며 힘차게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경주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매일 매일의 목표이어야 한다네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통제해야 한다네

80년 전, 에릭 리델은 아무도 그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올림픽 400미터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리델은 100미터 경주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으나, 예선전이 그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휴식을 취하곤 하던 일요일에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권했습니다. 100미터 경주에서의 잃어버린 기회를 한탄하는 대신 그는 다음 6개월을 400미터 경주를 위해 훈련하였고,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운동경기의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고전 9:25)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엄격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25절)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삶의 경주를 힘차게 끝마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NEW IDEAS
NEEDED

READ:
Proverbs 16:1-9

A man's heart plans his way, but the LORD directs his steps.
—Proverbs 16:9

In Jamaica, every kid knows about pushcarts. They are wooden crates-on-wheels that people all over the island nation fix up the best they can so they can race them headlong down steep hills in competition. Pushcart races are an exciting part of the culture of this tropical land.

One day a couple of guys had an idea. If pushcart racers could drive these carts down hills at breakneck speeds, why not use the same skills to race a bobsled in the Olympics? Why not, indeed! With that, the famous Jamaican bobsled team was born. Through innovation and hard work, a sport that cannot possibly be competed in the land of sun and beaches became a new symbol of Jamaica.

What a few Jamaicans did in their homeland, all of us as Christians should be willing to do—think of new, innovative ways to use the tools we have. And in the case of our churches, we're not talking about something as temporary as sports—we're talking about making an eternal difference.

Paul said that we should use all means so that we can save some. That means we have to be creative. What a difference each of us could make by spending time thinking of new ways to reach our community with the gospel. You can do it! —Dave Branon

*The love of Christ has freed us,
Has lifted us from shame;
Now we should do as He did,
And reach out in His name. —Egner*

새로운 아이디어 구함

성구:
잠언 16:1-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 찬송가 492

자마이카에서는 어린이들도 모두 푸쉬 카트를 압니다. 푸쉬카트는 나무상자에 바퀴를 단 수레인데 이 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솜씨를 다해 푸쉬카트를 만들어서 가파른 언덕위에서 아래로 내달리는 시합을 합니다. 푸쉬카트 시합은 이 열대 섬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젊은이들이 묘안을 짜냈습니다. 만약 푸쉬카트 레이서가 목이 부러질 정도로 속력을 내어 언덕 아래로 달릴 수 있다면 올림픽의 봅슬레드 경기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이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묘안대로 자마이카 봅슬레드 팀이 탄생했습니다. 새로 고치고 열심히 연습하여 태양과 해변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스포츠가 자마이카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자마이카 사람들이 고향 땅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가진 도구를 새롭고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때는 영원한 변화를 이뤄야 하며 스포츠처럼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개인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면 대단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한 그리스도의 사랑
수치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네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까지 올라가리

**FINISH
THE RACE**

READ:
2 Timothy 4:6-18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2 Timothy 4:7

At 7 p.m. on October 20, 1968, a few thousand spectators remained in the Mexico City Olympic Stadium. It was almost dark. The last of the marathon runners were stumbling across the finish line.

Finally, the spectators heard the wail of sirens on police cars. As eyes turned to the gate, a lone runner wearing the colors of Tanzania staggered into the stadium. His name was John Stephen Akhwari. He was the last contestant to finish the 26-mile, 385-yard contest. His leg had been injured in a fall and was bloodied and crudely bandaged. He hobbled the final lap around the track.

The spectators rose and applauded him as though he were the winner.

After he had crossed the finish line, someone asked him why he had not quit. He replied simply, “My country did not send me 7,000 miles to start the race. They sent me 7,000 miles to finish it.”

Not all heroes receive medals. Yet those who faithfully live for Christ, as the apostle Paul did, know that someday they will receive a crown of righteousness (2 Timothy 4:8).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reward all those who long for Christ’s return, are faithful in spite of difficulties, and finish the race. —Haddon Robinson

Help me to watch and pray

And on Thyself rely;

And let me ne'er my trust betray,

But press to realms on high. —Wesley

끝까지 달리기

성구:
디모데후서 4:6-18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 찬송가 397

가 결승선을 통과한 뒤 어떤 사람이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12,000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으로 나를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라고 12,000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메달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딤후 4:8).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경기를 끝까지 마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당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의지가 믿음에 등 돌리지 않게 하셔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소서

1968년 10월 20일 저녁 7시, 몇 천 명의 관중이 멕시코시티의 올림픽 경기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날은 거의 어두워졌습니다. 마라톤 최종주자가 결승선 건너편에서 비틀거리며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관중들은 경호 차량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리면서 탄자니아에서 온 외로운 주자가 비틀거리며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티븐 아크와리였습니다. 그는 42.195킬로미터를 끝까지 달린 마지막 참가자였습니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은 피 문은 다리에는 서투른 솜씨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마지막 한바퀴 트랙을 돌았습니다.

관중들은 일어서서 마치 그가 우승자인 것처럼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I BEAT
MY BODY**

READ:
1 Corinthians 9:24-27

I beat my body and
make it a slave.
—1 Corinthians 9:27

As the 1952 Olympics in Helsinki, Finland, approached, Czechoslovakian runner Emil Zatopek was not in good shape. He had been suffering a glandular infection, and his doctor told him he wasn't well enough to compete. But this was the Olympics, so Zatopek decided to travel to Finland.

First, he ran in the 5,000 meter race—and set a new Olympic record. Then he ran in the 10,000 meter race, and set another Olympic record. Each time he ran, those who observed him saw a man who seemed at any moment ready to collapse into a heap because of the pain he was suffering.

But Zatopek wasn't done. When the call went out for the marathon, he decided to give that a try. Despite never having run a marathon, you guessed it, Zatopek won the race in Olympic record time. He had battled adversity, he had done his best and more, and he was victorious.

How many of us have ever served God with similar diligence and sacrifice? How many of us will serve so hard—will “beat my body” as Paul said—that the pain shows? How many of us go “into strict training” so we can serve God wholeheartedly?

Learn from Emil—run hard in God's service. —Dave Branon

*To run the race of life in Christ,
This must become your daily goal:
Confess your sins, trust God for strength,
Use discipline and self-control. —Sper*

내 몸을 치다

성구:

고린도전서 9:24-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27

■ 찬송가 366

번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예측했겠지만, 그는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경과 싸워 최선 그 이상을 다했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가 한 것처럼 부지런하고 희생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중 몇 사람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몸을 치기”까지 하며 열심히 섬기는 고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 몇 사람이 “모든 일에 절제”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까요?

에밀에게서 배웁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전력을 다해 달리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달음질하는 것
이것은 일상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죄를 고백하고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항상 훈련하고 절제하라

1952년 핀란드의 헬싱키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을 때 체코슬로바키아의 장거리 육상선수 에밀 자토팩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선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그에게 주치의는 그의 건강상태가 경기에 참가하기에 좋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이었기에 자토팩은 핀란드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그는 5,000미터 달리기에 출전해서 올림픽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다시 10,000미터 달리기에 출전해서 올림픽 신기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가 달릴 때마다 관중들은 그가 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언제라도 쌓아올린 무더기처럼 무너져버릴 것 같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토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출전 요청이 왔을 때 그는 한 번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라톤은 한

성경을 믿는 열 가지 이유



1. 성경의 정직성

성경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아버지 야곱을 성경에서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하는 왕이며 영적인 지도자며 간음자며 음모자며 살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예언합니다.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단순한 답이나 편한 종교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 성경의 보존성

사해 근처 동굴에서 2,000 년 전에 만들어진 이사야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이사야서와 내용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무런 오류 없이 보존하셨습니다.

3. 성경은 단독으로 그 자체를 위해서 말한다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그런 말씀 선포를 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주제넘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모음집일 것이고 역사나 윤리 장르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현재와 영원한 평안을 그 말씀 위에서 지탱해왔기 때문에 저자들이 정보의 원천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좋은 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4.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만약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고전 15:14-17).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검증될 수 있도록 시간적 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고전 15:1-8).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선언한 것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로 믿은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부활은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5. 성경의 단일성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우리가 왜 여기에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를 만드신 이와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일관된 답을 주고 있습니다.

6. 성경의 역사 및 지리의 정확성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적 및 지리적인 정확성에 대해 의심해왔

습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들이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장소들과 문화유적들을 발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학자들이 추론한 것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7. 예수님의 보증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 성경 내용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마 4:1-11; 5:17-19). 그는 성경이 자신에 대한 책이라고 믿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 5:39-40).

8. 성경 예언의 정확성

모세 시대부터 성경은 아무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땅을 잃을 것이며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우리라고 예언했습니다(민 28-31). 이 모든 사건들은 예언했던 대로 일어났습니다. 구약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고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9. 성경의 생존성

성경은 2,000여년 동안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동안 그 어떤 책도 성경처럼 그렇게 사랑 받고 미움 받은 책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팔리고 연구되고 인용된 책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많은 모든 책의 척도가 되는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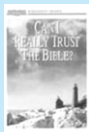
10. 삶을 바꾸는 성경의 능력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성경을 믿는다고 선언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지침서를 제시해 주는 근원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고통과 상실감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모범을 가르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바울의 사랑에 대한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은 분노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주위의 세상이 그런 것처럼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내용에서 전하는 그대로라면 당신 자신의 증거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저자는 당신을 도와 당신이 가진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성경이 결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원칙들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한 용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한 그 원칙들은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줍니다. 위와 같은 관련성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읽을거리: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www.discoveryseries.org/q0402를 클릭해서 읽어보십시오.

WALKING
AWAY

READ:
Exodus 33:12-20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Exodus 33:14

After winning a bronze medal in the 2004 Olympics in Athens, wrestler Rulon Gardner took off his shoes, placed them in the center of the mat, and walked away in tears. Through that symbolic act, Gardner announced his retirement from the sport which had defined his life for many years.

Times of walking away come to all of us, and they can be emotionally wrenching. A loved one “walks away” in death. A child moves away from home. We leave a job or a community and it feels as if we’ve left everything behind. But when we know the Lord, we never have to walk into an unknown future alone.

It’s worth pausing to reflect on how much the children of Israel walked away from when Moses led them out of Egypt. They left the heavy burden of slavery, but they also left everything stable and predictable they had ever known. Later, when the Lord told Moses,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Exodus 33:14), Moses replied, “If Your Presence does not go with us, do not bring us up from here” (v.15).

During our most difficult times, our stability comes from the presence and peace of God. Because He goes with us, we can walk into the future with confidence. —David McCasland

*I never walk alone, Christ walks beside me,
He is the dearest Friend I’ve ever known;
With such a Friend to comfort and to guide me,
I never, no, I never walk alone. —Ackley*

퇴장

성구:
출애굽기 33:12-2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출애굽기 33:14

■ 찬송가 491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왔지만, 동시에 안정되고 그들에게 익숙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출 33:14)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 마옵소서” (15절)라고 대답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요동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기에 나는 결코 홀로 걷지 않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친구라네

나를 그토록 위로하고 인도하는 친구이기예

나는 결코, 절대로 홀로 걷지 아니하네

레슬링 선수인 룰론 가드너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후에 그의 신발을 경기장 중앙에 벗어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퇴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가드너는 오랜 세월 동안 몸담아 왔던 스포츠계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퇴장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퇴장” 할 것이며, 자식이 집을 나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살던 곳에서 떠나게 될 것이며, 그때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갈 때 결코 혼자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왔지만, 동시에 안정되고 그들에게 익숙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출 33:14)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 마옵소서” (15절)라고 대답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요동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기에 나는 결코 홀로 걷지 않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친구라네

나를 그토록 위로하고 인도하는 친구이기예

나는 결코, 절대로 홀로 걷지 아니하네

모든 잃음이 남긴 공백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채울 수 있다.

**GO FOR
THE GOLD!**

READ:
Revelation 3:14-22

I counsel you to buy
from Me gold refined in
the fire, that you may
be rich.

—Revelation 3:18

Carl Lewis won four gold medals in the 1984 Summer Olympics. Despite his outstanding performance, he was accused of holding back in the long jump. Instead of going for the world record, he stopped competing after his first jump, confident that he would win the gold. Carl said that the Olympic trials had taken more out of him than he had expected, so he decided to save his strength for the other events. He explained that he was there to win gold medals—not to set records that would probably last only a short time.

This reminds me of what the Bible says about making the choice to use our time and energy for actions that have lasting value. The people in the church at Laodicea failed to do this (Revelation 3:14-22). Our Lord saw that their values were misplaced, for they took pride in their riches and self-sufficiency. So He told them they were lukewarm spiritually and were not relying on God (vv.15-17). They had to decide—would they keep pursuing temporal things, or would they go for the eternal gold of God's approval?

That's the challenge we face today. Our task is not to please the people around us. Our purpose is to win the eternal approval of our Lord. —Mart De Haan

Do we spend ourselves on what will last

Or what will fade away?

Let's not strive to win the world's gold,

But Christ's "well done" one day. —Sper

금메달을 따라!

성구:
요한계시록 3:14-22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
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3:18

■ 찬송가 356

시기에 그들의 가치기준은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함과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미지근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15-17절). 그들은 잠시뿐인 것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금메달을 향해 갈 것인가를 놓고 결정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영원한 것에 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라져 버릴 것에 써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잘했다” 하실 날을 위해 일합니다.

칼 루이스는 1984년 하계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넓이뛰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점프를 마치고 금메달이 확실해진 그는 신기록을 위해 한번 더 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칼은 올림픽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력 소모가 컸기 때문에 다른 경기를 위해 체력을 아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금메달을 따러 온 것이 얼마 가지 않아 깨어질 기록을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간과 힘을 잘 사용하여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계 3:14-22). 주님이 보

**YOUR
LAST DAY**

READ:

1 Thessalonians 5:1-11

Let us not sleep, as
others do, but let us
watch and be sober.
—1 Thessalonians 5:6

What if you were told this morning that today was to be your last day on earth? How would you spend its fleeting hours? Whom would you insist on seeing? Would your behavior differ radically from what it usually is?

Someone has wisely said, “You should treat every day as if it’s your last one, because one of these days you’re going to be right.”

There’s no getting around it. Whether our earthly life ends by accident, illness, the ravages of age, or our Lord’s return, one of these days will be our last. That’s why we should guard so carefully the things we do and the words we say.

We ought to be tying up the loose ends of long-neglected matters by expressing our love and gratitude to others, by seeking reconciliation with an alienated friend, or by sharing the gospel with a neighbor.

Perhaps you’ve even been putting off accepting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until some more convenient day. But that day may never come. Since your last day on earth can be so unexpected, heed Paul’s inspired words: “Now is the accepted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 Corinthians 6:2). Are you living each day as if it were your last? —Vernon Grounds

THINKING IT OVER

*What are the five most important things you
would do if this were your last day on earth?*

Would you seek out God?

제 3 주
수요일

당신의 마지막 날

성구:
데살로니가전서
5:1-11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
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6

■ 찬송가 329

표시하고 소원했던 친구와 화해하고, 또는 이웃과 복음을 나눔으로
써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마저도 좀더 편리한 날로 미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당신의 마지막 말
은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바울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은 마음에 간
직하십시오: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다” (고후 6:2). 당신은 하루가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계십
니까?

주님을 믿어 세월을 되찾고
지체없이 준비하세
죽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오늘 당신이 사는 방법에 영향을 미쳐야 하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지구상에서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오늘 아침 듣는다면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누구를 보겠
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평소와는 전혀 다
르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말하기를, “당신은
매일매일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는 당신이 맞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사고, 질병, 노화 또는 주님의
재림, 그중 어느 것으로 끝을 맺을지 모르지
만 어느 날인가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
을 하든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A MYSTERY
SOLVED

READ:
1 Corinthians 15:51-58

If a man dies,
shall he live again?
—Job 14:14

What happens to us when we die? That mystery has intrigued people down through the ages.

Some researchers are cautiously suggesting that they may be close to an answer. They are checking into reports from individuals who claim to have undergone near-death experiences that took them beyond time and space. Some analysts think that further research will eventually solve the mystery of death.

Must we anxiously await their verdict? By no means! God has already revealed in the Bible what happens after death.

If we have trusted God's Son Jesus Christ as our Savior, we know we will be "present with the Lord" when we die (2 Corinthians 5:8). Paul said that because Christ died for our sins and rose from the grave,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1 Corinthians 15:54). But those who reject Christ will have to face God's fierce judgment and an eternity in hell (Revelation 20:11-15).

Anyone looking for clues about what happens to us when we die would be wise to research the Bible. It gives us God's answer to the most pressing question of the ages. Christ's empty tomb assures us that it is a mystery already solved. —Vernon Grounds

He lives, and grants me daily breath;

He lives, and I shall conquer death;

He lives, my future to prepare;

He lives to bring me safely there. —Medley

풀린 신비

성구:

고린도전서 15:51-58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옴기 14:14

■ 찬송가 151

우리가 죽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신비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 왔습니다. 어떤 연구가들은 그들이 답에 근접해 있다고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을 데려 갔던 죽음의 문턱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 결국은 죽음의 신비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론을 안타깝게 기다려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미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죽은 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압니다 (고후 5:8).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까닭에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전 15:54).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계 20:11-15).

우리가 죽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그것이 이미 다 풀린 신비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그분, 나에게 매일의 호흡을 주시네
살아 계신 그분, 나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네
살아 계신 그분, 나의 앞날을 준비해 주시네
나를 안전하게 그곳에 데려 가시려고 그분은 살아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죽음은 비극이 아니고 승리이다.

EMPTY PROOF

READ:
1 Corinthians 15:1-8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inthians 15:4

In the days after the French Revolution, a man tried to start a new religion that he believed was superior to Christianity. But he was disappointed at his lack of success. He revealed his frustration to a clergyman and asked what he could do.

The clergyman replied that it was no easy task to begin a new religion—so difficult that he had nothing to suggest. But after a moment's reflection, he said, "There's one plan that you might want to consider. Why don't you get yourself crucified and rise again the third day?"

The firm foundation of the Christian faith is an empty tomb. The New Testament declares that the death of Jesus paid the penalty for our sin.

But how can anyone know for sure that Christ's crucifixion was acceptable to God? It doesn't matter much what we think of the death of Jesus; what matters is what God thinks about it.

God's approval of the sacrifice Jesus made for us is proven by the resurrection. It stands as God's signed receipt that He is completely satisfied. Without the resurrection, Christianity has nothing much to offer the world. But the fact that Christ died and then rose from the grave "is the power of God to salvation for everyone who believes" (Romans 1:16). —Haddon Robinson

THINKING IT OVER

Some have said that Christianity is a relationship, not a religion. Do you have that relationship?

빈 증거

성구:
고린도전서 15:1-8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4

■ 찬송가 150

납되었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부활로 증명
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시다고 손수 서명하신
영수증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세상에 제공할 것이 별로 없
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롬 1:16).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죄값을 치루셨네
무덤에서 일어나심은
그의 죽으심이 충분한 증거라

볼란서 혁명 후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
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는 새로운 종
교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성
과가 없어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는 좌절감
을 어느 성직자에게 토로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성직자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권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본 후 그는 말
했습니다. “한 가지 고려할 만한 방법이 있
긴 합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하
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면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근거는 빈 무덤입
니다. 신약성경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루었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처형이 하나님께 용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는 열 가지 이유



1. 동정녀 잉태설

만약 마리아가 진실을 말했다면 그녀의 아기에게는 인간인 아버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라고 불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눅 1:26-35). 마리아가 거짓말을 했다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밤은 거룩하지 않았을 것이며 고요했던 유일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별 다를 것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설은 가장 쉽게 잊힐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자를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

700년 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이사야는 또한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뜻입니다.

3. 탄생을 전한 천사들

한 천사가 소스라치게 놀란 유대의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눅 2:8-14).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눅 2:10-12).

4. 하늘에 나타났던 표적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로 왔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수백년에 걸쳐 “한 별”과 “한 홀”(민 24:17)이 이스라엘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라고 했습니다(미 5:2).

5. 정확한 시점

예수님이 탄생한 후 예수님을 경배했던 박사들이 바빌론 지역에서 왔다면 그들은 유대의 예언자 다니엘의 예언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유대인인 메시아가 올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환상을 체험했습니다(단 7:13-14; 9:24-27).

6. 하나님과 동등함을 선언한 예수님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과 하나임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 8:58)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출 3:14-)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30)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요 14:7).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증오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것 모두가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예수님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경배함

예수님의 제자 중의 하나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 20:28).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3, 14).

8. 하나님 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그의 원수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선자며 눈먼 지도자들과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준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을 때 분개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돌을 들어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 10:33)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9. 예수님의 선언을 뒷받침한 예수님이 행한 기적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모든 남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표적이자 경이였습니다. 그는 물위를 걸었고 병자를 고쳤으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도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0-31)

10. 탄생보다 더 장엄했던 예수님의 승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기꺼이 죽었습니다. 단 한사람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은 그의 가까운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신자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고전 15:5-8).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확신을 갖게 되어 그들은 기꺼이 고통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 후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했습니다. 탄생했을 때보다 더 장엄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전한 천사들의 말을 더 잘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둘러싼 증거들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억지로 믿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잘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 점을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당신의 구원자이자 선생님이자 주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값을 치르고 산 선물입니다.



더 읽을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당연한 일일까요?

www.discoveryseries.org/q1104를 클릭해서 읽어보십시오.

Week 4
Monday

NO GREATER LOVE

READ:
Mark 12:28-34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n to
lay down one's life for
his friends.

—John 15:13

You can't show a greater love for people than James Harrison demonstrated. And he did it for people he didn't even know.

Harrison, a member of the Ouachita Baptist University choir, was returning home from Europe with his fellow singers. As their plane was landing in Little Rock, Arkansas, it was hit by heavy rains and high winds. The jet skidded off the runway and hit a bank of lights, ripping open the fuselage.

As chaos reigned and flames broke out in the mangled plane, Harrison began to help others. Over and over, he pulled passengers to safety and ran back to the plane for more. On his last trip into the burning wreckage, he was overcome with smoke.

He didn't make it out alive.

At his funeral, the choir director quoted John 15:13,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n to lay down one's life for his friends." Jesus was really speaking of His own death on our behalf, and the choir leader pointed out the value of this ultimate sacrifice.

We may never be called upon to make the kind of sacrifice Harrison made during that tragedy. Yet every day we have opportunities to set aside our comfort to love our neighbors (Mark 12:31). How much love do we show? —Dave Branon

*The more Christ's love within us grows,
The more His graciousness outflows;
And when we face a fiery test,
His love we then will manifest. —Hess*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성구:
마가복음 12:28-34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 찬송가 97

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대학 합창단 지휘자는 요한복음 15:13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를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에서 우리를 대신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지휘자도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바친 희생의 가치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엄청난 비극의 상황 속에서 제임스가 보여주었던 그와 같은 희생을 요구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막 12:31). 그럴 때 얼마만큼의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임스 해리슨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와치타 침례대학교 합창단원이었던 해리슨은 동료 합창단원들과 함께 유럽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비행기가 야칸소의 리틀록에 착륙할 때 세찬 비바람이 비행기에 몰아쳤습니다. 비행기는 미끄러지며 활주로를 지나쳐 조명등이 있는 언덕에 부딪치면서 동체가 부서져 열렸습니다.

부서진 비행기 안이 수라장이 되며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일 때 해리슨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을 계속하여 안전한 곳으로 끌어다 내놓은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비행기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화염에 싸인 비행기의 잔해 속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간 그는 연기에 질식하고 말았고 다시는 살아 나오지 못하는 운명

**FINISH
STRONG**

READ:
2 Timothy 4:1-8

I may finish my race
with joy.
—Acts 20:24

The finish line was in view. In fact, from Lindsey Jacobellis' perspective, it was right under her. As she flew through the air at the end of the women's snowboard cross competition in the 2006 Olympics, she needed simply to land on her skis and cross the finish line to win the gold medal. But as she soared toward the ground, she did a toe-grab of her board—a bit of a show-off move—and lost her balance. She crashed to the snow and as she slid down the hill, the second-place boarder zoomed past her and into first place.

Years of dedication and sacrifice had gone into Jacobellis' career to get her to that point. A stellar performance at the Games had put her seconds away from the coveted gold medal. All Lindsey had to do was finish strong, and sports immortality would be hers. For whatever reason, though, she lost her concentration just long enough to ruin everything.

If we look at each day as another opportunity to serve God and glorify Him with the “ministry . . .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how will that change how we finish? Will it spur us to look at every personal encounter as a chance to be Jesus to that person? Will it challenge us to use each word and action as a reflection of His greatness? If we want to finish strong, there will be no room for actions that point the spotlight on ourselves. —Dave Branon

What are some ways you can encourage someone else today? How can you put the spotlight on them?

**확실한
끝마무리**

성구:
디모데후서 4:1-8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 찬송가 348

야만 했던 일은 확실하게 끝마무리를 하여 경기에서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이유가 무엇이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망치기에 충분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매일을 “예수님께 받은... 사역”과 함께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다른 기회로 기대한다면 이것이 끝마무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채찍질하여 개인적인 모든 만남에서 상대방이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기대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반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확실한 끝마무리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행동을 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들이 조명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다.

결 승선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린드세이 재코벨리스가 보기에는 결승선이 그녀 바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2006년 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크로스경기 끝 무렵 공중을 가르고 날았을 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스키보드를 착지하여 결승선을 넘고 금메달을 얻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향하기 위해 솟아올랐을 때 그녀는—약간 뽐내는 동작으로—보드를 잡았는데 그만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눈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언덕 아래로 미끄러졌을 때 두 번째 선수가 솟아올라 그녀를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재코벨리스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이룬 경력에는 여러 해에 걸친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었습니다. 경기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화려한 동작이 바라던 금메달에서 몇 초 멀어지게 했습니다. 린드세이가 해

TO BE
CONTINUED

READ:
Hebrews 11:8-16

Here we have no
continuing city,
but we seek the one
to come.

—Hebrews 13:14

Do you like continued stories? Let's say you're reading a magazine article or watching a television program for half an hour, and you come to the place where the hero plunges into the water to rescue his drowning sweetheart. Then you're left hanging in the air with the words: "To be continued." How disappointing!

I have quite a different response to the inscription on the tombstone of a follower of Christ. It reads: "To Be Continued Above."

Yes, this life is but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of life. Whether that chapter is long or short, it is not the end, but it is to be continued. For the believer, it will be continued in heaven with our Lord. There is no

break between the chapters; you don't have to wait till next month's installment or tune in next week to hear the concluding episode. Chapter two follows chapter one without interruption. It is continued immediately, for "to be absent from the body [is] to be present with the Lord" (2 Corinthians 5:8).

What will the next chapter be for you? It will be written sooner or later, either in heaven or in hell. Remember, when your time comes to die, that is not the end. Your story is "to be continued"—but where? —M. R. De Haan

*Life's fleeting days will soon be o'er
When death ends all that's gone before;
Yet life in Christ continues still,*

For all who lived to do His will. —D. De Haan

다음에 계속

성구:
히브리서 11:8-16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
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14

■ 찬송가 544

에 중단은 없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려고 다음달에 나올 연재물을 기다리거나 다음주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1장에 이어 제2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몸을 떠나는 것인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고후 5:8)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즉시 계속됩니다.

당신 인생의 다음 번 장은 어떤 것이 될까요? 조만간 천국에서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당신 인생이 쓰여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죽음이 닥쳐올 때에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계속될까요?

죽음이 지난날의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게 될 때에
살 같이 빨랐던 날들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연속극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이 약 30분 동안 잡지의 글을 읽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주인공이 물에 빠진 자신의 연인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드는 장면까지 왔는데 거기서 “다음에 계속”이라는 말과 함께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정지 상태로 화면이 끝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던 한 성도의 무덤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서는 아주 다른 느낌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계속”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생명책의 첫 번째 장에 불과합니다. 그 첫장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 사이

LOST PRAYERS

READ:
Psalm 86:1-7

In the day of my
trouble I will call upon
You, for You will
answer me.
—Psalm 86:7

The headline read: UNANSWERED PRAYERS: LETTERS TO GOD FOUND DUMPED IN OCEAN.

The letters, 300 in all and sent to a New Jersey minister, had been tossed in the ocean, most of them unopened. The minister was long dead. How the letters came to be floating in the surf off the New Jersey shore is a mystery.

The letters were addressed to the minister because he had promised to pray. Some of the letters asked for frivolous things; others were written by anguished spouses, children, or widows. They poured out their hearts to God, asking for help with relatives who were abusing drugs and alcohol, or spouses who were cheating on them. One asked God for a husband and father to love her child. The reporter concluded that all were “unanswered prayers.”

Not so! If those letter-writers cried out to God, He heard each one of them. Not one honest prayer is lost to His ears. “All my desire is before You,” David wrote in the midst of a deep personal crisis, “and my sighing is not hidden from You” (Psalm 38:9). David understood that we can cast all our cares on the Lord, even if no one else prays for us. He confidently concluded, “In the day of my trouble I will call upon You, for You will answer me” (86:7). —David Roper

*God has given you His promise
That He hears and answers prayer;
He will heed your supplication
If you cast on Him your care. —Bernstecher*

놓쳐버린 기도

성구:
시편 86:1-7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
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7

■ 찬송가 484

는 이 모두가 “응답 없는 기도”가 되었다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정직한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위기에 처했던 다윗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 38:9)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지라도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확신하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86:7)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약속하셨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 간구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네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하나님께 쓴 편지가 바다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다.”

뉴저지의 한 목회자에게 보낸 300통의 편지가 대부분 뜯겨지지도 않은 채 대양에 버려졌습니다. 그 목회자는 이미 죽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이 어떻게 파도에 밀려 뉴저지의 바닷가에서 떠다니게 되었는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

다. 편지들이 그 목회자에게 발송된 것은 그가 기도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편지들은 사소한 일들에 대한 요청이었으며, 다른 편지들은 고통 받고 있는 배우자, 자녀 혹은 혼자된 부인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약과 술을 남용하는 친척이나, 외도하는 배우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기

**THERE WHEN
YOU NEED IT**

READ:
Hebrews 9:11-22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1 John 1:7

When I donated blood some time ago, a nurse gave me a card to read while a pint of the vital red fluid was flowing out of my vein. The card showed the percentages of people who have the different blood types. Here are some of them:

O Positive.....	37.4%
A Positive.....	35.7%
A Negative.....	6.3%
B Negative.....	1.5%

The rarest, AB Negative, is found in only 1 in 167 people, or 0.6% of the population. Then the card made this eye-catching statement: “The rarest blood type is the one that’s not there when you need it.”

That reminded me of a supply of blood that is one of a kind and always available to those who ask for it. First John 1:7 states,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It was the death of Christ, the shedding of His blood, that satisfied the demand of a holy God as payment for our sins (Hebrews 9:12,22). So now, whenever a person cries out in faith to God, repenting of his sin and pleading for forgiveness, his prayer for salvation is answered.

I am deeply grateful that Jesus was willing to die on the cross, giving His blood for me, so that forgiveness was available when I needed it. Aren’t you? —Dave Egner

THINKING IT OVER

*How can you be sure God will let you into heaven? Read
Safe And Secure: The Permanence Of Salvation
at www.discoveryseries.org/q0606*

필요할 때
거기 있다

성구:
히브리서 9:11-22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1서 1:7

■ 찬송가 184

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값으로 요구하신 것을 만족시켰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즉 주님이 흘리셨던 피였습니다(히 9:12,22).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할 때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게 용서가 필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지만
날마다 피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의 정결함 유지하여야 하리

혈마 전 헌혈을 하면서 약 500CC의 붉은 피가 나의 정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안 간호사가 내게 읽으라며 카드 하나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다른 혈액형을 보유한 사람들의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O-양성	37.4%
A-양성	35.7%
A-음성	6.3%
B-음성	1.5%

가장 희귀한 AB-음성은 167명 중 1명으로 전체 인구 중 0.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을 끄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희귀한 혈액형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없는 바로 그 혈액형입니다.”

유일무이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수혈이 가능한 다른 혈액이 있습니다. 요한1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10가지 이유



1. 설립자의 신빙성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논리학에서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늘의 주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가 베푼 기적을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의 흠 없는 삶을 살살이 지켜봤고 그의 참혹한 죽음을 직접 보았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 6:69).

2. 성경의 신뢰성

1,600여년에 걸쳐 40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여 영생의 문턱에서 끝맺음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및 지리적 기록이 완전무결한 사실임은 고고학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줍니다. 손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성경의 정확성은 콤팩트의 사해사본에 의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3.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삶에 대한 설명

모든 종교제도는 죽음의 불가피함 같은 의미심장한 이슈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려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우주만물에 담겨진 계획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를 기억하시며 기록하고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실 수 있으며 (마 10:29-31), 창조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느끼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 기독교 신앙의 과거와의 연속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창조주이자 주님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라와 솔로몬이 경배했던 창조주이자 주님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된 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행 2:22-39; 고전 15:1-6)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고전 15:1-6)

5.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되는 주장

초대 기독교인들은 죄 없는 한 남자가 죽고 사흘 후의 기적적인 부활에 대해 목숨을 걸고 세계에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행 5:17-42).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천으로 감싸여 동굴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감시인들이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뒤에 무덤은 비어 있었고 증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6. 삶을 바꾸는 기독교 신앙의 능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첫 번째 제자들 뿐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최악의 적이었던 바울은 기독교인 킬러에서 최고의 수호자 중

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갈 1:11-24). 후에 바울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전 6:9-11).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후 1:15)

7. 기독교 신앙의 인간 본성에 대한 분석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의 근원이 무지함이나 국회나 정부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슴속에 있는 죄를 지적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19-20).

8. 기독교 신앙의 인간 성취에 대한 관점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삶의 질을 열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 중지부를 찍을 만치 전쟁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명하고 비폭력적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적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편해질 수 있도록 좋은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인류의 높은 희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세상은 무서운 종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마 24:5-31; 딤후 3:1-5).

9. 기독교 신앙의 사회에 대한 영향

나사렛에서 온 목수가 세상을 변하게 했습니다. 공문서의 목록들과

날짜가 명시된 문서들은 그의 탄생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가치는 사회도덕, 근로윤리, 그리고 사회구제 노력의 기초가 되어왔습니다.

10. 기독교 신앙의 구원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보여줍니다(롬 10:9-13).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 우리가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실패를 고백해야 합니다(엡 2:8-10).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합당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심을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

만약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합당성을 본다면 성경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재확인하는 약속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더 읽을거리: 왜 그리스도는 죽어야 했을까요?
www.discoveryseires.org/q0202를 클릭해서 읽어보십시오.

인격적인 관계 맺기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라시는 삶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중 돈을 관리했던 가장 믿음직한 한 사람마저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결코 갖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을 만남의 장소인 동산으로 안내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입맞춤하는 인사로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로 그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신임은 받았지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관계 맺기,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 - 그것은 역사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 그것은 구원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기는 예수님이 거듭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요 3:3).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영적 왕국의 일원이 됩니다.

이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아직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삶의 질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한 파괴적인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요 1:1-114; 3:16).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는 완벽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의 희생으로 가장 보잘 것 없고 가장 악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는 단어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유사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리가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온전한 용서와 영생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다니시기를 권유합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당신의 결정을 알려십시오.

「오늘의 양식」 「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안내

청원 및 헌금자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우편번호				H · P																										
구 분	부 수	월	부	구독기간:	년 월~ 년 월																									
	①신규 ②주소변경 ③부수변경 ④재신청 ⑤취소		헌금입금은행 : ()은행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신청부수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